그 사람 지금은

(17) 김동환 前광주시장

"제2 순환도로 그땐 다들 반대했었지"

"15년전 제가 제2순환도로 공사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렇게 큰 도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젠 제3순환도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더군요"

일반인들의 기억에서는 희미해졌지만 김동환 전 광주시장은 50대 이상의 공무원들에게 도로행정의 달인이자, 광주에서 산업도시의 개념을 가장 먼저 행정에 접목한 시장으로 기억되고 있다.

관선시대 두 차례나 광주시장직을 지냈고, 민선자치 초대 시장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김동환(75) 전 광주시장은 광주에 살면서도 공식 행사에 거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인사 가운데 한명이다. 김 전 시장은 광주시가 행정상 보통시였던 1985년 시장을 지낸 뒤, 전남도 부지사를 거쳐 직할시의 시장(92~93년)을 지냈다.

85년 제1순환도로 마지막 구간(백운광장~남광주역)을 개통했던 그는 93년 직할시장에 오른 뒤, 곧바로 제2순환도로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 착공 2년 만에 학동에서 광주대에 이르는 구간을 개통했다. 당시 시민들의 반응은 '저렇게 넓은 도로가 광주에 필요한가' 정도 였다고 한다.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살기가 빠듯해서 사회간접자본이

SOC 확충 행정 최우선 삼아

평동산단 조성 등 산업화 주도

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광주는 날로 인구가 늘면서 도시가 팽창하는 추세였어요. 당시 상황만을 놓고 보면 2순환도로를 만들 만큼 교통수요도 없었지만 미래 발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해 밀어부쳤습니다"

김 전 시장은 순환도로 착공과 더불어 광주 최초의 산업단지인 평동산단을 조성했다. 산단을 조성하더라도 입주할 기업이 별로 없었지만 소비도시인 광주를 산업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인프라를 조성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 그는 95년 민선 1기 시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 당시 집권당이었던 신한국당 후보로 나선 것이다. 지역정서상 당선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그 배경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억측이 무성했다.

"지금과 달리 그때의 정치현실상 시장은 집권당과 당적이 같아야 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알았지만 관선시대 임명직 시장으로서 야당 보다는 집권당의 후보로 나서는 것이 여러모로 보나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간접자본을 중시한 시장이었던 만큼 지하철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지하철을 도입한 송언종 전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과 관련, 그는 "지하철만을 갖고 송 전 시장을 어떤 형태로든 평가하는 것은 그분에게 너무나 억울하고, 바람

약 력

- ▲1932년 나주 출생
- ▲고려대 상과 졸업
- ▲전남도 산하 광주시장
- ▲전남도 부지사
- ▲전남발전연구원 초대 원장
- ▲광주직할시 4대 시장

직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지하철은 다른 지역 광역시가 모두 채택한 시설이었을 뿐만 김대중 정권 시절 사업이었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인 만큼 자신이 시장이었다고 해도 추진했을 것이라는 얘기다.

후배 공무원과 민원 행정에 대한 조언도 빼놓지 않았다.

공무원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공복이라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되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임을 맡았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민원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지만 이를 좀더 신속히 긍정적으로 해결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그의 시책 중 85년에 시행해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킨 '민원버스'라는 게 있다.

1985년 제1순환도로 백운광장~남광주역 개통식을 마친 후, 김동환(맨 오른쪽) 전 광주시장과 전석홍(오른쪽에서 두번째) 전남지사가 나란히 행사장을 나오고 있다.

20여년 전 관공서에 대한 문턱이 너무나 높고, 통신 상황도 좋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행정이었다. 일주일 중 특정일에 시장이나 부시장이 민원버스를 타고 각 동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현장 민원을 접수, 즉석에서 행정 책임자가 답변을 하는 것이다. 민원 접수에서 처리까지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한다.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광주시가 올해에는 도심공동화 해소와 문화수도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전남도청 이전 이후 심화되는 도심공동화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고, 광주의 장래와 직결되는 문화수도 사업도 시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시가 능동적으

"20년전 버스타고 다니며 민원 접수

신속한 현장처리 주민들 호응 좋았죠"

로 움직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환 전 광주시장은 현직에서 물러난 뒤 조용히 산을 벗삼아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무등산을 뒷산으로 둔 동구 운림동 자택에서 독서를 하고, 심심하면 인터넷으로 바둑을 두기도 한다.

간혹 후배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할 때면 "내 세대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네들에게는 어떨 지 모르겠네"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정도라고 한다. 워낙 시대 변화가 빠른 탓에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기가 부담스러워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전하는 정도로 만족한다고 한다.

다만 공식행사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 그 이지만 지난 2003년에는 마음이 맞는 지인들과 함께 광원포럼이라는 모임을 발족시켰다. 요란스러운 행사를 하는 모임은 아니지만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개혁을 바라는 이들의 조그마한 모임이라고 소개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전라도 역사이야기 -추자도

제주·전라도 문화 '경계지대'

1914년 완도군서 제주로 이속

정해년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뱃길을 잡았다. 광주에서 오전 5시30분 출발, 완도항에서 추자도 가는 8시발 배에 올랐다. 3등석에서 3시간 걸려 하추자도 신양항에 도착했다. 멸치 젖통보다 생수 페트병 더미가 눈에 띄었다.

44개 섬으로 구성된 추자면은 지난해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속하게 됐다. 1946년 전라남도에서 제주도가 분리되었지만, 말씨나 풍습에서 호남다움이 엿보여 '제주속의 전라도'라 표현하기도 한다. 제주와 전라 문화의 '점이지대'가 된 만큼 연혁과 유래도 복잡하다.

추자도는 고려 때 탐라현, 조선 초 제주목에 속했다.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영암군 땅이었다가 1884년 제주목으로 재편됐다. 1894년 해남현 관할이 되었다가 두 해 뒤에는 완도군에 편입됐다.이후 1914년 제주군에 이속되었다.

추자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고려사 1258(고종45)년 송길유의 유배 대목이다. 태조실록에 '추자도(楸子島)'가 나오고, 세종실록에는 '주자도(舟子島)'라고도 기록돼 있다. 대개 추자의 유래를 "가래나무 열매가 바둑알 처럼 놓여 있는 곳"으로 풀이하고 있다.

상추자도의 추자항

1273년 려몽연합군이 제주 삼별초를 평정했다. 항해 때 바람이 세차 위기를 맞았으나, 추자에 대피하여 전열을 가다듬어 성공했기에 '후풍도(候風島)'라 불렀다고 한다. 뭍에서 제주 가는 징검다리 구실을 톡톡히 해냈다는 뜻도 담고 있다.바람을 막아준다는 의미로 '가래섬(楸子島)'으로도 불렸다.

추자는 주 섬을 놓고 웃섬과 밑섬이 라이벌이었다. 상추자도(1.5㎢)에는 면사무소와 등대가 있고, 목포배가 도착한다. 하추자도(3.5㎢)에는 최고봉인 돈대봉(164m)과 중학교가 있다. 예부터 갈등이 심했는지 문헌마다 몸섬(身島)과 딸림섬(別島)을 달리 기록하고 있다. 1972년 10월 두 섬 사이 156m에 연육교가 놓이고, 8.8㎞의 자동차 도로가 개설됐다.

상추자도에는 큰작지(大作只)와 절구미(寺口味) 마을이 있고, 하추자도 동네에는 진작지(長作只), 얼그미(於伊今), 무기(墨只), 여초(礖·禮草), 새터(新基), 석지머리(石頭里)가 있다. 상추자 대서리 엄바우 마루에는 1972년 기념물 제 11호로 지정된 최영(1316~1388)장군 사당이 있다. 제주도로 묵호의 난을 진압키 위해 가다가 바람을 피해 추자에 하루 머물렀던 최영은 고기 잡는 법을 주민들에게 알려주었다. 한이 맺혀 죽은 사람, 특히 벼슬아치나 장군은 신(神)으로 모셔진다. 해마다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고 있고, 추자항을 '당포(堂浦)'라 칭했다. 최영 사당은 경남 통영과 남해, 충남 홍성에도 있다.

현재 추자도에는 1천3백여호 2천900여명이 살면서 한해 6천여톤 300억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다. 여름에는 멸치로 유명하지만, 다른 철에는 조기와 삼치도 많이 잡힌다. 감성돔과 농어를 쫓아 1만 명의 낚시꾼이 찾고 있다.

/김경수(사)향토문화진흥원장